'기피시설 옛말'…남원시, 교도소 유치 나서

시,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 위촉…이달말 후보지 선정
이·통장 70% '긍정적' 입장…자신 거주지 건립 찬성도

남원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교도소 유치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5일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남원지원과 남원지청이 소재했는데도 교정시설이 없는 점을 명분으로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시는 추진위원들과 함께 이달 말 자체 후보지를 선정해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남원시가 23개 읍·면·동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건립에 대한 찬반 의사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과거 교정시설은 기피·혐오시설로 꼽혀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란 인식이 생기면서 강원 태백시와 경북 청송군 등 지방 소도시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국도 17호선과 24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함께 개발 가능한 드넓은 시유지 등을 갖춰 유치전에서 한 발 앞섰다는 분석이다.

남원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식자재의 수형자 급식, 면회객의 인근 식당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도소 유치는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며 "교정시설 입지 여건에 맞는 부지를 찾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대 '수(水) 체험센터' 공사 현장.

고창군, 귀농귀촌학교·체류형 교육생 통합 수료식

예비농업인 3기 교육생 모집

고창군 귀농·귀촌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해 진행된 귀농·귀촌학교와 체류형 교육 통합수료식이 열렸다.

지난 3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료식은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수료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

이날 귀농·귀촌학교 87명의 교육생들과 체류형 교육생 27세대 36명 중 65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기초영농기술교육, 공동 텃밭과 하우스 작물실습교육, 우수농장현장 체험 등 농업 농촌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군은 이번 수료하는 체류형 2기 교육생 27세대 중 고창군에 정착했거나 정착의지를 갖고 있는 세대는 16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촌정착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에게 체류 공간과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번달 말부터 고창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제3기 교육생을 모집을 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을 찾아온 귀농인 여러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군, 음용 온천수 활용 '수(水)체험센터' 조성 순항

순창군의 음용 온천수를 활용해 건립 중인 '수(水) 체험센터'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순항하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수 체험센터는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839번지 일대에 연면적 2904㎡, 지상 2층 규모로 치유누리실과 사우나실, 테라피실 등을 갖추고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모토로 조성되고 있다.

야외에 온천관광정원을 만들고 온천 족욕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해 강천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되는 순창군의 야심찬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수 체험센터 건립 장소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발효 분야를 테마로 조성중인 발효 테마파크와 강천산을 잇는 중간에 있어 순창군의 대규모 관광 로드를 완성할 방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천 온천개발지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팔덕지 수변개발사업도 관광호텔과 보양 온천 조성 등 민간자본을 투입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수 체험센터 건립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또 음용 온천수도 수 체험센터를 성공시킬 요소중 하나로 꼽힌다. 음용 온천수는 2014년 모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전국에서 이 온천수를 받기 위해 도로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던 만큼, 조성 후 관광객 유치에도 군 측은 자신하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익산시·국민연금공단, 지역문제 해결 '맞손'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의 공동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개별 기관이 보유한 문제 해결 역량을 집약시켜 복잡한 사회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 실무자들은 지난 5월부터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적합한 연계·협력 분야 및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오는 2020년부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수행, 시범과제 발굴·추진,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공동체연금 구축·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 '정읍사랑 상품권' 발매 시작

5000원권·등 3종 50억원 규모 24일까지 농축협서 판매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읍사랑 상품권' 발매를 시작했다.〈사진〉

정읍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으로 총 50억원 규모 발행되며 이달 24일까지 지역 내 농·축협에서 구매와 환전이 가능하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점검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영업일 기준 12일간 일시적으로 상품권 판매가 중단된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다음 달 13일부터 협약을 맺은 지역 내 46곳의 금융기관 본점과 지점(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고창군수협, 감곡새마을금고 제외)에서 구매와 환전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자는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이·미용업소, 주유소, 학원, 병원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개인 구매 시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6%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품권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가맹점 등록신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근대문화역사 '짬뽕거리' 무산 위기

영업전망 불투명·임대료 비싸 업소 9곳 중 8곳 입점 철회

군산시가 조성하려는 '짬뽕 거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근대문화역사 거리 일대에 조성하는 짬뽕 거리에 들어오려던 9개 업소 가운데 8곳이 입점 의사를 철회했다.

불투명한 영업 전망에 임대료까지 치솟아 입점 예정 업체들이 줄줄이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1곳만이 계획대로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짬뽕 거리의 짬뽕 업소는 기존 3곳을 포함해 4곳에 그치고 있다.

짬뽕 거리에 최대 15개 업소를 밀집시키겠다는 군산시의 계획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업소들이 입점을 포기한 것은 짬뽕 거리가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구도심에 있어 손님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여기에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비 등의 부담은 크다는 점도 입점을 포기하게 한 요인이다.

업소들이 임대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요구했으나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이마저도 불발됐다.

짬뽕 거리 조성사업은 군산의 대표 음식인 짬뽕을 널리 알리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5억원을 들여 구도심인 근대문화역사 거리 주변 동령길과 장미길 등에 짬뽕 업소를 밀집시키고 주변 경관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할 계획이었다.

군산시는 사업을 내년으로 연장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지원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려우리라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이와 관련 군산시 시의회 의원들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업소들이 영업 전망에 대한 불안때문에 입점을 망설이는 데 군산시는 홍보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라"고 질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無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